조계종복지재단 처장에 탄웅 스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처장 첫 임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에 탄웅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 많고, 업무도 많다. 상임이사와 협조해 불교복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제개편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신설된 사무처장직에 임명된 탄웅 스님은 1992년 수계했다. 1999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관음사, 한산사, 극락사, 대덕사, 국제선센터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국제선센터 주지로 임명된 법원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장을 받은 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국제선센터 신임주지에 법원 스님

서울 국제선센터 신임주지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18일 국제선센터 주지에 법원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국제선센터의 지리적 요건과 특성을 살려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스님은 혜향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흥사 동국선원, 망월서 천중선원, 백련사 만덕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대성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봉축행사 성공 개최 기원"

불교진흥원, 연등회 5000만원 기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 · 사진)은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으로 4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불교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자비정신을 실천해왔다"며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세계적인 생태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불법의 혜안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봉축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윤호섭 기자**

"범국민 환경인식 불교가 제고한다"

Interview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연계한 캠페인 등 전개
불자 · 국민 인식 개선 주력
"환경운동 지역 곳곳서 진행"

"불교환경연대는 이제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생태사상과 문화전통을 알리는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재도약을 통해 불교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4월 17일 상임대표 법만 스님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법만 스님은 서울 경운동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상임대표 수경 스님을 필두로 새만금, 북한산, 4대강 등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불교의 종교성에 바탕을 둔 헌신적 활동으로 널리 귀감이 돼 왔다"며 "이제 환경연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범국민 환경인식 개선 등 불교환경연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라는 자기성찰을 기반으로 한 환경지킴이 운동에 나섰던 수경 스님의 은거 이후 불교환경연대는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재도약을 위한 100일 4대강 순례길에 올랐다. 당시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주축으로 다시금 활동력을 되찾고 지난해 새 사무실 개소 등 교육과 활동의 터전을 마련했다.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연대가 불교를 대표하는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생태사상과 문화전통을 현대인 심성에 맞게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생태영성을 불어넣는데 힘쓰겠다"며 "특히 불교 안에서부터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녹색불교만들기 운동을 실시하고,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그리고 불자들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문수 스님의 4대강 사업 반대 소신공양 당시 감명을 받아 불교환경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고창 선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도 오랫동안 관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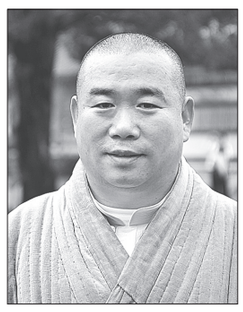
법만 스님은 "현재 광주전남, 울산지부와 몇 개 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규 지부도 개설해 전국네트워크를 갖출 계획이다. 전국동시활동으로 환경연대 활동을 극대화하겠다"며 "종단과 각 교구본사와도 유대를 높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과 지구 존립을 다투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일은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업중생의 이 세상에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자, 그리고 모든 이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만 스님은 끝으로 "환경운동은 벽을 넘어 사회전반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파고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찰, 단체 협약을 확대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지구생태계 보존과 온 생명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2천여 동문과 모교 발전 진력"

중앙승가대학 제18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건학40주년 맞아
내실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학교와 T/F 구성… 발전 논의"

"올해로 중앙승가대가 건학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2000여 명의 스님들이 중앙승가대서 배출됐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중앙승가대는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앙승가대 제18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사진〉은 취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4월 15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신임 회장인 성행 스님의 취임을 알렸다.

중앙승가대 12기인 성행 스님은 청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으로 종무행정과 포교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단 중진 스님이다. 또한 직전까지 동문회 차석부회장과 운영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동문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무엇보다 스님은 건학 40주년을 맞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와 동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학교와 함께 구성하려 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의 역할을 살피고 이에 맞춰 활동하겠습니다. 후배 학인과 학교가 가장 필요한 것을 파악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스님은 또한 동문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동문들의 역량이 학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총무원장, 호계원장 스님은 중앙승가대 출신이고, 중앙종회의원 30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들이 끈끈한 정을 갖고 모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하고 학교 발전 불사에 동참토록 독려하려 합니다."

성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동문 역량 집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무행정, 포교, 사회, 복지 등 각각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문 스님들의 역량과 힘을 모으는 역할을 동문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강원 산불피해 성금 전달

종단협,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4월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종단협을 대표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의 아픔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어서 29개 불교 종단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최고인물대상 봉사상 수상

청운 스님 "앞으로도 자비행 계속"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평소 '선업선보의 정신'으로 지역 경로당 등에서 복지활동을 펼쳐 온 청운 스님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봉사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운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자비행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낙동강 방생 수륙용왕재

무심사 무심선원, 4월 14일 법회 봉행



무심사 무심선원(선원장 무심)은 제12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재 대법회를 4월 14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선원장 무심 스님은 "수륙용왕재는 지수화풍의 4대 신에게 마음의 작용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불교의 목적인 우주의 근본 진리인 참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식후에는 민물고기를 낙동강물에 방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탈종공고

- 사찰명 : 약사정사
- 주 소 : 경남 진주시 의병로 128 (상봉동)
- 주 지 : 석 진여스님 (속명 : 강영화)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사)대승교단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장 법하